

남도 애환 달래준 구성진 가락...동·서편제 '소리의 본향'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제와 서편제가 나뉘지는 등 이 일대에서는 한민족의 애환이 담긴 판소리가 발전했다.

(국성군청 제공)

달 올리는 江 동서통합지대 화합의 江 섬진강

8 판소리

고단한 삶 함께 불렀던 노래 강줄기 따라 전승
동쪽 동편제·서쪽 서편제 발달...다수 명창 배출
자자체, 매년 국악제 열어 창법 보존·신인 발굴

송화와 유봉이 진도아리랑을 애절하게 부르며 청산도 돌담길을 따라 내려오는 장면은 영화 '서편제'의 백미다. 서편제와 동편제는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살아온 남도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선율이다. 또 섬진강은 서편제와 동편제를 나누는 중요한 지리적 역할을 한다. 삶이 고단하거나 힘들 때 불렀던 노래가 탄생하고 널리 퍼지게 한 곳이 바로 섬진강인 셈이다.

특히 섬진강 일대의 서편제와 동편제는 정부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중요한 문화 콘텐츠다. 함께 노래를 불렀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되살려 내는 것이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민족의 한 달래준 소리의 강=판소리는 전승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섬진강을 중심으로 전라도 동부지역에 전승되는 소리를 동편제라고 하고, 서쪽은 서편제로 분류한다.

동편제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운봉·순창·구례·흥덕 지방에서 널리 퍼졌고, 곡조가 씩씩하며 맑은 게 특징이다. 또 시작이 진중하고 무거운 발성을 쓴다. 비교적 굳게 구사되며 구절마다 음을 짧게 끊는다.

발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동편제는 서편제보다 음을 높게 들어나는 발성이 많아서 흔히 '들고나가는 소리'라고 한다. 또 동편제는 서편제에 비해 비교적 빠른 장단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동편제 소리는 송흥록과 그의 아우 송광록, 송흥록의 수제자인 박만순에게 전승됐다. 또 송광록의 아들 송우룡에게 이어졌고, 송우룡을 통해 송만갑, 전도성, 유성준, 이선유, 송업봉에게 전승됐다.

서편제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서쪽인 광주·보성·나주·고창 등이 전승지이다. 슬픈 계면조의 노래가 대부분이며, 정교한 시김새(구밈음)를 사용하고, 가벼운 발성이 특징이다.

또한 서편제는 동편제보다 많은 기교를 쓰기 때문에 장단의 진행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계면조(界面調)의 쓰임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영화 '서편제'의 한장면.

서편제 소리는 박유전과 그의 수제자 이남치와 정재근에게 전해졌다. 이남치의 소리는 이창윤, 강용환, 김채만에게 전해졌다. 이어 김채만의 소리는 공창식, 박종원, 박동실, 성원목에게 전해졌다. 이들의 소리는 김소희에게도 전해졌고, 김소희의 심청가는 박동실제를 중심으로 판 것으로 LP와 CD음반으로도 전해진다.

서편제의 한 분파인 강산제(보성소리)는 서편제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박유전의 심청가를 듣고 대원군이 "네가 강산 제일이다"라고 극찬한 데서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그의 호에서 따왔다고도 한다. 강산제는 정재근과 정응민, 정권진 등 보성의 정씨 문중을 통해 전승됐고, 현재는 성창순, 성우향, 조상현 등으로 그 맥을 잇고 있다.

한 마디로 동편제가 남성적이라면, 서편제는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원형으로 살아남 남도 소리=섬진강 일대에서 완성된 이들 소리는 인근 지자체에서 소중한 문화 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다.

동편제와 서편제의 본향 전남 구례와 보성에서 판소리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국창 송만갑, 박봉술 등 명창을 배출한 동편제의 터전인 구례에는 국내 유일의 동편소리축제가 있다.

이 축제에서는 명창들의 공연 뿐 아니라 동편제 명창들을 기리는 동편제 명창 추모제, 대동놀이 한마당, 율타기 공연 등이 곁들여진다. 과거 구례동편학술세미나도 열려 '송만갑의 예술 세계' 등을 조명하기도 했다.

동편제 판소리의 창시자인 가왕 송흥록선생이 태어난 남원시 운봉읍에서도 다양한 보존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곳은 송흥록, 송광록, 송우룡, 송만갑, 김정문, 이화중산, 장재백, 박초월, 배설향, 강도근, 안숙선, 강경숙, 전인삼 등 수많은 명창들이 지리산 자락을 벗삼아 소리를 배운 곳이다. 남원에서는 '동편제 박록주 바디 심청가 복원 및 재현 발표회' 등을 통해 동편제의 복원과 보존에 나서고 있다.

동편제, 서편제 창법을 고루 익혔지만 특히 서편제에 뛰어났던 임방울 선생을 기리는 임방울국악제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 축제는 판소리 명창부, 무용·기악(가야금·거문고·아쟁·피리·대금·해금) 등 우리 소리를 보전하고 신인을 발굴하는 중요 무대다. 국창 임방울(1905~1961) 선생은 목소리 하나로 일제 강점기 민족의 한을 달래준 소리꾼이다. 임방울 선생은 1905년 4월 옛 전남 광산군 송정읍에서 출생해 이를 기리기 위해 광주에서 임방울국악제가 열리며 광주의 대표 축제가 성장했다.

이처럼 섬진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우리 소리는 문화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영화와 음악 등 관련 장르에 무한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서통합지대의 성공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성역 | 광송간도로

북고당 한약방

● 한약재이력
● 생·유·무·농·생·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